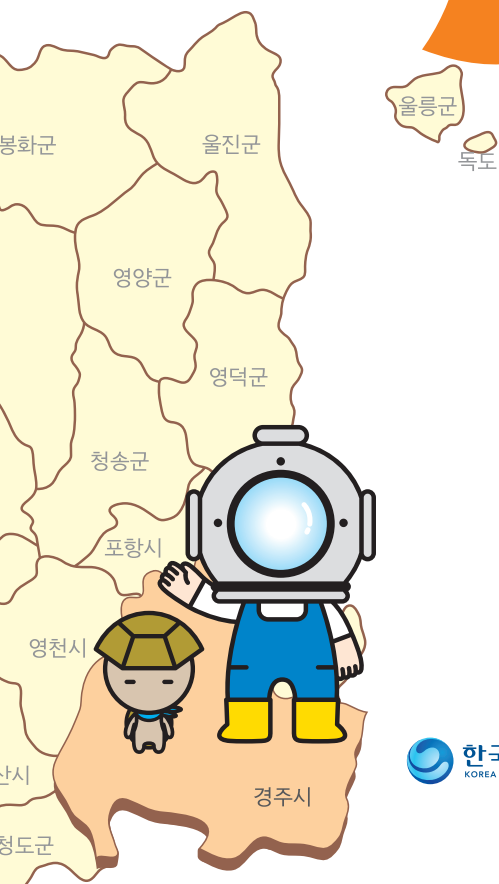


천년의 미소가 살아 숨쉬는 신라의 옛 수도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학생용 워크북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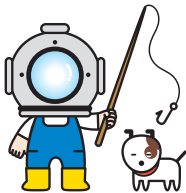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천년의 미소가 살아 숨쉬는 신라의 옛 수도



HOGI

호기와 시큰둥이



호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해양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해양재단이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1 경주의 바다에 가기 전에

경주의 바다와 자연환경	04
경주 사람들의 생활과 해양산업	05

2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탐방 1] 죽어서도 해룡이 되어 동해를 지키는 문무대왕의 수중릉, '대왕암'	07
[탐방 2] 거대한 쌍 탑의 위용 '감은사지'와 '신문왕릉'	12
[탐방 3] 옥대(玉帶)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전설 서린 '이건대'	19
[탐방 4]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던 함월산 기슭 고즈넉한 절, '기림사'	24
[탐방 5] 아름답고도 쓸쓸한 '장항사터'	31
[탐방 6] 해국 고샅으로 접어드는 감포 '깍지길'과 '감포항'	36
[탐방 7] 오감만족 바다 놀이터 '연동어촌체험마을'	41
[탐방 8]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과 어촌 벽화마을 '읍천항'	46
[탐방 9] '전촌항 관광단지'와 '전촌 솔밭해변'	52
[탐방 10]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 '송대말' 등대	57
[탐방 11]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63

3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후에

1. 경주의 바다에 가기 전에

가. 경주의 바다와 자연환경

천년의 미소가 살아 숨 쉬는 신라의 옛 고도,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천년(B.C 57~A.D 935)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불교유적과 왕경(王京)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교토 나라시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한반도를 천년이상 지배한 신라왕조의 수도로 경주남산을 포함한 경주 주변에 한국의 건축물과 불교 발달에 있어 중요한 많은 유적과 기념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바다는 동해와 인접해있는 감포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감포읍은 지리면적이 작으면서 해안선을 안고 장반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북, 서, 남 삼면이 고저의 산세로 평야가 적은 편입니다. 위치는 동경129도 31분 북위35도80분 어간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9개 법정리와 1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19년 감포내항 방파제축조로 항구의 입지를 갖추고 면적 44.5제곱킬로미터 인구 3,000명의 주민으로 동해 어업의 주생산지 역할을 합니다.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1937년 7월 1일 오류, 감포, 호동, 노동, 팔조, 전동, 전촌, 나정, 대본 등의 9개리를 떼어 양북면에서 분리되어 경주군에서는 가장 먼저 읍(邑)으로 승격되었던 항구입니다.

남으로는 양남면, 서로는 양북면, 동북으로는 포항시 장기면과 오천읍의 일부를 경계로 두고 있는 긴 전통을 가진 경주시 유일한 어항으로 동해 남부의 어업 전진 기지인 오랜 항구입니다.

경주 감포항과 그 주변 해역은 난류인 대마도 해류가 대한해협을 거쳐 북상하고 멀리 함경도 강원도 연안을 흘러내려온 한류와 부딪치는 수역으로 생선 맛이 좋은데다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난류를 따라 이동하는 공치·방어·삼치·상어 등과 한류를 따라 이동하는 대구·가자미·도루묵 등의 어류와 오징어·문어·소라·전복 등의 연체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장의 변화와 시대 상황 등에 따라 많이 잡히던 어종이 없어지거나 잡히지 않고, 어떤 어종은 새롭게 뜨기도 합니다.

● 경주의 해양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주시의 살림을 알아보는 경주시청, 그리고 경주 동해안의 관광 명소 및 지역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감포읍사무소, 경주문화관광, 경북나드리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면 경주의 다양한 해양 문화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청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index.jsp

감포읍사무소

http://www.gyeongju.go.kr/village/open_content/gampo/

신라문화원

<http://www.silla.or.kr/tour/moon.aspx>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deploy/>

문화재청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나. 경주 사람들의 생활과 해양산업

2015년 1월1일 경주시 진현동-감포 나정리 구간 국도 4호선이 왕복 4차 국도로 전면 개통이 되어 동해안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동경주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전에 보문 단지에서 감포를 가려면 30~40분 정도 소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길이 고불고불하여 불편을 겪었지만 새로 개통된 길을 따라가면 기계리 경주 감포 국도 시작 지점에서 5분정도가면 길이 4.3킬로미터 정도 되는 토함산 터널을 통과하여 불국사에서 출발하여 감포까지 20분가량 소요되어 감포 바다를 더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31번 국도의 남으로는 32킬로미터에 울산광역시와 있으며, 북으로는 2킬로미터 지점에 포항시가, 4번 국도의 서쪽으로는 경주시 보문관광단지가 있어 관광해양휴양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매우 커서 경북관광 개발공사가 해양휴양지 개발을 위해 나정리 일대 150만평에 감포관광단지를 개발,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양레저, 위락단지의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평가가 적어 농산물 소득은 단감 등 일부에 한하며, 수산물은 동해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멸치젓과 오징어 등이 유명하며, 특히 미역은 수집상이 자연산으로 속여 팔 정도로 우수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의 수산물은 횡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관내 300여개의 횡집이 성업 중입니다.

오류고아라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전촌 솔밭해변, 봉길대왕암해변, 나아해변, 관성솔밭해변은 경주 동해안의 청정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하절기 휴양지입니다. 특히 오류고아라해변과 전촌솔밭해변에는 오토캠핑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숙박 선택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역사적 명소가 함께 위치하여 감은사지, 기림사, 문무대왕의 수중릉, 대종천 등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경주 동안해안의 명소에 특히 어린 학생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어촌체험 마을은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사업비 10억원으로 2013년 6월 착공하여 2,056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중해식으로 숙박시설 및 어촌체험마을 센타를 건립하였으며, 2014년 7월 바다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바다 놀이터에는 아라나비, 풍덩, 전통낚시, 스노클링, 전통놀이, 조개공예, 낚시배 체험, 카약트레킹, 통발체험 등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레포츠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포지역의 돌미역과 엇갈이미역, 멸치젓갈, 피데기 오징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서 그 질과 품미가 뛰어나며, 감포읍에서 조성한 감포 스토리텔링로드 <감포깍지길>은 경주 동해안을 대표하는 지역탐방로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죽어서도 해룡이 되어 동해를 지키는 문무대왕의 수중릉, '대왕암'



무엇을 배울까요

- 문무왕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봅시다.
- 동해 바다와 만나는 하천, 대종천의 전설을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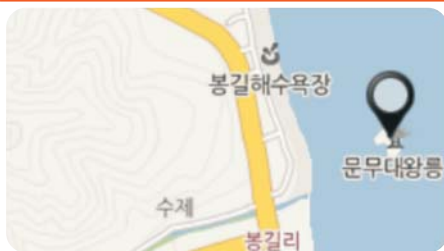


자원탐방 길라잡이

수중릉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중릉으로 사적 제158호이며, 대왕암이라고도 불립니다.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왕으로 죽어서 호국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위치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366-5
관람시간	연중수시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79-8743~8759
교통편	150, 105-1번 버스 타고 봉길리에서 하차 주차요금 (소형: 3,000원, 대형: 4,000원)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수중릉 관찰시 해안에서 관찰할 것 무리한 수영 시도로 대왕암으로 접근하지 말 것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문무대왕의 수중릉 ‘대왕암’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사적 제158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신라 제30대 문무왕(626년~681년)의 수중릉으로 사적 제158호이며, 대왕암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변에서 200미터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있어 수중릉으로 불립니다.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뛰어난 군주(君主)로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문무왕이 재위 21년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 삼국사기 기록

문무왕은 죽으면서 “나의 유해를 불교식으로 화장해 동해에 장사를 지내라. 그리고 나를 위해 큰 무덤을 만들지 말라. 옛날 천하를 다스리던 위력 있는 임금일지라도 끝내는 한 줌의 흙더미로 변하고 마침내는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여우와 토끼들이 굴을 파는데 죽은 사람의 일에 많은 경비를 들이는 일은 재물만 낭비하는 일이요, 백성들의 수고만 헛되게 하는 일일뿐, 영혼을 오래도록 고요히 평안하게 하는 일은 못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숨을 거둔 열흘 뒤에는 화장하고 장례는 간소하게 하라. 그러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의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으므로 이 바위를 대왕암 또는 대왕바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은 대왕암이라 하여 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수중릉의 구조

이 수중릉은 해변에서 가까운 바다 가운데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자연 바위로 남쪽에는 작은 바위가 이어져



있으며, 둘레에는 썰물일 때만 보이는 작은 바위들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 마치 호석처럼 보입니다.

대왕암에 올라보면 마치 동서남북 사방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水路)를 마련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나 있는 수로는 파도를 따라 들어오는 바닷물이 외부에 부딪쳐 수로를 따라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큰 파도가 쳐도 안쪽의 공간에는 바다 수면이 항상 잔잔하게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의 공간은 비교적 넓은 수면이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넓적하고도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수면은 이 돌을 약간 덮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골을 이 돌 밑에 어떤 장치를 해서 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KBS-TV ‘역사스페셜’팀의 조사 결과 유골이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문무대왕의 뼈를 뿌린 산골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물이 들어오는 부분보다 나가는 부분이 15센티미터 가량 낮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돌을 다듬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뼈를 뿌린 후 상징적 무덤으로 만들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방으로 마련된 수로와 아울러 안쪽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문무왕의 수중릉일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위의 안쪽에 마련된 공간에 사방으로 수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부처의 사리(舍利)를 보관한 탑의 형식에 비유됩니다. 즉,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방에 문이 마련되어 있는 인도의 산치탑의 경우나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익산 미륵사 석탑 하부의 사방에 통로를 마련한 것과 같은 불탑의 형식이 적용되어 사방에 수로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는 특이한 형태의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봉길 대왕암 해변 몽돌 해수욕장

동해로 흐르는 대종천의 하구에 자리한 이곳은 대왕암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감은사지와도 가까워 역사 문화 유적 관광을 겸한 바다 나들이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몽돌해수욕장으로 해변을 걷는 걸음에서 느낌이 모래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 대종천

감은사에서 대왕암으로 가다보면, 넓지만 얇은 하천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천이 바로 대종천입니다. 대종천은 몽고의 침략과 관련이 깊은 강입니다. 고종 25년(1238) 경주는 몽고의 침입으로 황룡사 등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황룡사에는 성덕대왕 신종의 네 배가 넘는 종이 있었는데, 몽고군은 본국으로 종을 가져가고자 하였습니다. 100톤에 가까운 종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수로 뿐 이어서, 대종천으로 종을 운반하려 하였습니다. 종을 실은 배가 하천을 지나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폭풍이 몰려와 함께 배와 함께 종도 가라 앉아 버렸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하천을 큰 종이 지나갔다고 하여 ‘대종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다는 목격담이 있어 탐지선을 동원하여 종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풍량이 심할 때면 대종 소리가 동해 일대에 들린다고 합니다.



몽돌 해수욕장



대종천

탐방 후에... ①

제 목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왕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보고, 몽고침입에 얽힌 대종천의 설화를 생각하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문무대왕은 왜 바다에 묻히게 되었을까요?



몽고 침입으로 소실된 대종천에 가라앉은 100톤의 종을 운반했다는 배의 모양을 구상하여 그려봅시다.



거대한 쌍 탑의 위용 ‘감은사지’와 ‘신문왕릉’

🔍 무엇을 배울까요

- 신문왕의 효심과 충심을 알아봅시다.
- 감은사지 탑 장대석 태극무늬를 찾아보고, 다양한 태극무늬를 조사해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감은사는 동해안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지금은 3층 석탑 2기와 금당 및 강당 등 건물터만 남아있습니다. 신문왕 때 문무왕의 유언을 받들어 장사지낸 곳이 절 부근의 대왕암이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고 합니다.

위치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248
관람시간	연중수시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79-8743~8759
교통편	150, 105-1번 버스 타고 감은사지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감은사지 법당터 기단석 위에 올라서지 말고 관찰하기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경주 감은사지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사적 제31호

감은사는 동해안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지금은 3층 석탑 2기와 금당 및 강당 등 건물터만 남아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후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절이 다 지어지기 전에 왕이 죽자, 그 뜻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 ~ 692년)이 682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지낼 것”을 유언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장사한 곳이 절 부근의 대왕암이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고 합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강당·금당·중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금당 앞에는 동·서쪽에 두 탑을 대칭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회랑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금당의 지하에는 배수시설이 있는데, 죽은 문무왕이 바다 용이 되어 이 시설을 통해 왕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감은사는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언제 절이 무너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은사지 법당터



■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舊 감은사지삼층석탑)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국보 제112호

감은사터 넓은 앞뜰에 나란히 서 있는 쌍탑이 있는데 2단의 기단(基壇)위에 3층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서로 같은 규모와 양식을 하고 있으며, 옛신라의 1탑 중심에서 삼국통일 직후 쌍탑가람(절)으로 가는 최초의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은사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새 나라의 위엄을 세우고, 당시 틈만 나면 동해로 쳐들어오던 왜구를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운 절로, 동해 바닷가인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절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즉위 이듬해인 682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호국사상은 탑에도 이어져 장중하고 엄숙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탑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부분들이 하나의 통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개에 이르는 부분석재로 조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탑을 세운 시기는 신문왕 2년(682)으로, 1960년 탑을 해체 수리할 때 서쪽탑 3층 몸돌에서 청동제사리(보물 제366-1호)와 청동제사각감(보물 제366-2호)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3층 석탑으로는 가장 거대하며,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모습은 실로 한국석탑을 대표할 만합니다.



감은사지 일몰 전경

■ 감은사지 장대석 태극무늬

감은사지 태극 장대석은 통일신라 신문왕 2년에 건립된 감은사지 금당터 동편 및 서편에 자리 잡은 막대 형태의 기다란 돌입니다. 한때 감은사지 장대석 태극무늬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무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1882년 박영호가 만들었으며, 또 중국에 주돈이가 서기 1070년 전에 도안을 했다하나, 감은사지 태극무늬는 서기 682년으로서 중국의 주돈이보다 388년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초반 칼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띤 나무판에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는 목제품 한 쌍이 2008년 나주서 출토되었는데, 이 백제 나무판은 백제 사비시대(538년~660년)인 7세기 초반에 의례용 기물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은사지의 태극무늬(682년)보다 더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무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은사지 태극 장대석은 해와 달의 운동을 계산하는 고도의 천문학적 상징 체계로 밝혀졌다고 하니, 태극무늬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굉장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또한 일설에서는 ‘태극’이라는 것이 유학의 용어로 불교 유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감은사지 태극무늬

감은사지의 기단 문양은 그 어떠한 당대 유물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구

 소재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번호 보물 제366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感恩寺址 西三層石塔 舍利莊嚴具)는 경상북도 월성군 감은사터에 있는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국보 제112호) 가운데 서쪽에 있는 석탑을 해체·수리하면서 3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장치입니다.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이 사리장치는 사리를 모시기 위한 청동제사각감과 그 안에 있던 사리기(그릇)인데, 사리기를 넣었던 사리감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발견 당시 몹시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사각형의 깊숙한 상자에 완만한 원뿔모양의 뚜껑이 있는 형태로, 전체 높이가 약 31센티미터 정도 되며 사리감의 네 옆면에는 각각 사천왕상이 1구씩 새겨져 있고, 그 양 옆에는 각각 동그란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주위는 꽃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모두 동판에 따로 새겨 작은 못으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꽃과 잎무늬로 가득 메운 가는 장식판을 이용해 단을 돌렸는데, 뚜껑의 둘레에도 마찬가지로 단을 돌렸습니다.

네 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은 그 자세나 옷의 무늬가 중국 당나라의 조각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아시아의 조각상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사리기는 정사각형의 기단과 사리병을 모셔 둔 몸체, 그리고 수정으로 만들어진 보주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목조 건축물을 연상케 합니다. 사리기의 기단과 몸체 부분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그 윗부분인 보개는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습니다.

사리기의 기단은 안상을 새기고 신장상을 배치하였으며, 기둥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단의 맨 위에는 난간을 돌리고, 그 안에 4개의 주악상과 4개 동자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리장엄구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는 물품이므로, 지극한 신앙심을 갖고 최상의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여 만드는 공예품입니다. 특히 감은사지 서삼층탑 출토품은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당시 최고의 장인이 참여하여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현존유물도 금이나 수정과 같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여, 우수한 세공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왕실미술과 불교공예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신문왕릉

 **소재지** 경주시 동방동 660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사적 제185호



신라 31대 신문왕(재위 681년~692년)의 무덤입니다.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로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고히 하였고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으며, 지방통치를 위해 9주5소경제도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백제·말갈인을 포함시킨 중앙 군사조직인 9서당을 완성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정비하여 전제왕권을 다졌습니다.

높이 7.6미터, 지름 29.3미터의 둥글게 흙을 쌓은 원형 봉토무덤으로 둘레돌은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5단으로 쌓았고 44개의 삼각형 받침돌이 둘레돌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낭산(狼山) 동쪽에 신문왕을 장사지냈다고 되어있어, 낭산 동쪽 황복사터 아래쪽 12지신상이 남아있는 무너진 왕릉을 신문왕 무덤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탐방 후에... 2

제 목	신문왕의 효심과 충심을 알아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감은사지를 세운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감은사지의 태극 무늬를 찾아보고, 우리 나라 태극 문양이 그려진 문화재를 더 찾아봅시다.



옥대(玉帶)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전설 서린 ‘이견대’

🔍 무엇을 배울까요

- 이견대에 서린 전설을 알아보고, 만파식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신문왕은 해변에 감은사를 짓고, 용이 된 아버지가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법당 밑에 동해를 향하여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는데, 그 뒤에 용이 나타난 곳을 이견대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대밀길 12-14
관람시간	연중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79-8743~8759
교통편	150, 105-1번 버스 타고 (구)대본초등학교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이견대에서 수중릉을 관찰할 때 바닷가에 너무 다가가지 않도록 함.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이견대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사적 제159호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증릉인 대왕암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31대 왕인 신문왕이 681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신문왕은 해변에 감은사라는 절을 짓고, 용이 된 아버지가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법당 밑에 동해를 향하여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는데 그 뒤에 용이 나타난 곳을 이견대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견대에서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옥대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하나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견대라는 이름은 신문왕이 바다에 나타난 용을 보고 나라에 크게 이익이 있었다는 뜻을 포함한 말인데, 『주역』의 ‘비룡재천 이견대인 (飛龍在天 利見大人)’이란 문구에서 따온 것 입니다.

발굴조사 때 건물이 있던 자리가 발견됨으로써 신라의 건축양식을 추정하여 오늘날 새롭게 다시 지었습니다.

■ 옥대(玉帶)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전설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습니다. 신문왕 2년에 해관(海官)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고 하여 일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 보니,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가서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견대(利見臺)에 가서 보니, 부산(浮山)은 거북 머리 같았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서 오색찬란한 비단과 금과 옥으로 용에게 보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려 대나무를 베도록 하였는데, 바다에서 나올 때 산과 용이 홀연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감은사에서 묵고는 17일에 지림사(祗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서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태자 이공(理恭)<즉 효소대왕(孝昭大王)>이 대궐을 지키다가 이 일을 듣고 말을 달려와서 축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자는 옥대를 살펴보더니 “이 옥띠의 여러 개의 장식은 모두 다 진짜 용입니다.” 라고 하여 왕이 그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태자는 “앞 하나를 따서 물에 넣어 보십시오.” 왼쪽 두 번째 것을 따서 계곡물에 넣었더니 곧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 땅은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용연(龍淵)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대궐로 돌아와서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고,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나았으며, 가물면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었으며,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습니다. 그 뒤 효소왕 때 이적(異蹟)이 거듭 일어나,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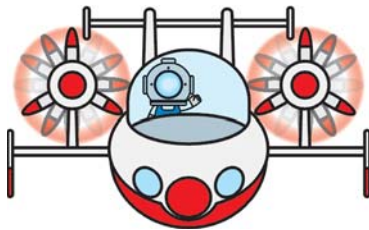
감은사지가 있던 내에서 종소리 또는 물 끓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하는데, 이로 보아 만파식적의 소리로 왜적을 물리쳤다는 등의 이적은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과 기상 변화에 기인해서 나는 소리로 일어났던 결과가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만파식적은 악기로서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 이성계의 금척(金尺) 등과 같이 건국할 때마다 거듭 나타난 신성한 물건과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에 이어서 즉위한 신문왕은 정치적 힘의 결핍과 일본의 침입이라는 문젯거리를 타결하기 위하여 지배층의 정통성과 동질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신물을 등장시킨 이러한 신화를 만들었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탐방 후에... ③

제 목	이견대에 서린 전설을 알아보고, 만파식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내가 만약 '만파식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그 피리를 불고 싶은지 적어 봅시다.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으로 4행시를 지어봅시다.

4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던 함월산 기슭 고즈넉한 절, '기림사'

Q 무엇을 배울까요

- 동해구로 나가는 중요 길목에 위치한 기림사의 절을 둘러 보고 신라호국행차 순례 코스를 알아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기림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인도의 스님 광유가 세워 임정사라 불렀고, 그 뒤 원효대사가 새롭게 고쳐 지어 기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절은 천년에 한번 핀다는 한약초 '우담바라'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기림로 437-17
관람시간	연중 - 동절기 (09:00~17:00), 하절기 (09:00~18:00)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79-6109
교통편	100, 150, 105-1번 버스 타고 기림사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기림사 누리집(www.kirimsa.net)
탐방시 유의사항	기림사 휴양형 템플스테이 운영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기림사

 **시 대** 신라시대



함월산의 기슭에 있는 기림사는 불국사보다 앞서 지어졌고, 한때는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을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까지 31본산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불국사 말사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기림사와 골굴사를 품고 있는 함월산은 추령을 사이에 두고, 안개와 구름을 토하고 삼킨다는 토함산과 마주하여 솟아있는데, ‘함월’이라는 말은 달을 품은 산이라는 뜻으로, 달을 잘 담을 수 있는 둥글고 넓은 분지 가운데,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춤추며, 신령스런 거북이가 물을 마신다는 영구 음수형의 명당자리에, 기림사라는 고즈넉한 사찰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기림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인도의 스님 광유가 세워 임정사라 불렀고, 그 뒤 원효대사가 새롭게 고쳐 지어 기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절은 천년에 한번 핀다는 한약초 ‘우담바라’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승원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것이 기원정사와 죽림정사입니다. 특히 기원정사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3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 기원정사의 숲을 기림(祇林)이라 하니 경주 함월산 기림사는 그런 연유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기림사는 김동리 소설 '무녀도'에서 율화가 아들을 불제자로 만들기 위해 맡긴 곳이기도 합니다.

기림사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차(茶)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기림사의 창건 설화에서 태자 안락국이 임정사를 짓고 부처님께 차 공양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림사가 차공양, 차 문화와 함께 창건된 사찰이라는 것은 기림사 창건 설화와 기림사 뒤편의 차밭, 약사전 내벽에 그려져 있는 차공양 벽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기림사는 동해구로 나가는 중요 길목에 위치

신문왕 호국행차 길로 신라 수호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길목에 있는 기림사는 현재 경주에서 감포로 가는 도로(국도 4호선)변에서 북쪽으로 약 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옛 신라시대 때는 경주에서 동해구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고 죽어서 용이 되고자 했던 문무왕의 장례행렬도 이 길을 따라 운구되어 동해 수증릉에 안치되었습니다.

경주를 떠난 마차는 이 하천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추령 고갯길에서 왼쪽 모차골로 방향을 틀어 수렛재를 넘어서 기림사를 거치고 감은사 앞을 지나 대왕암까지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보문에서 추령터널을 지나 양북, 감은사로 길이 열렸지만, 당시엔 서라벌 - 보문호 - 덕동댐 - 추령계곡 - 추원마을 - 수렛재 - 용연폭포 - 기림사 - 대중천 - 감은사로 이어졌다고 한다. 험난한 추령을 피해 비교적 완만한 골짜기로 들어가 ‘수렛재’를 넘고 다시 호암천 골짜기를 따라 동해구로 이어진 길입니다.

‘모차골’이란 이름은 마차가 다니던 길이라는 ‘마차골’에서 변형이 되었고 ‘수렛재’란 고개 이름도 수레가 넘어다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수렛재’를 넘어 기림사 계곡으로 들면 수레를 끌던 말이 굴렀다는 말구부리가 있고, 장례행렬이 잠시 쉬어가며 손을 씻었다는 ‘세수방’이 있습니다.



서라벌에서
문무왕릉까지의 신라옛길

거기서 좀 더 가면 ‘용연(龍淵)’인데 ‘용연’은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비바람을 잠재우고 적을 제압하는 피리 만파식적과 옥으로 된 허리띠를 동해의 용으로부터 얻어 경주로 되돌아가던 길에 쉬어갔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삼국유사에는 682년 신문왕이 여기에서 용에게 받은 허리띠 한 조각을 개울에 넣으니 용이 되어서 승천하고 그 자리에 깊은 소와 폭포가 생겼다는 기록과 기림사 서쪽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연(龍淵)’은 깊은 소(沼)와 폭포가 있어 이곳을 ‘기림폭포’로 부르기도 합니다.

■ 대적광전

 시 대 조선시대

대적광전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비로자나불을 모셔 놓은 법당을 가리킵니다. 선덕여왕 때 세워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한 것으로 지금 건물은 조선 인조 7년(1629년)에 크게 고쳤을 때의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입니다. 겉모습은 절의 중심 법당답게 크고 힘차며 안쪽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정숙하고 위엄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포에 조각을 많이 넣어 17세기 건축 흐름을 알 수 있고, 수리를 할 때 옛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아 중요한 건축사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건칠보살 반가상

 **시 대** 조선시대

 **지정번호** 보물 제415호

기림사 유물관에는 보물 415호로 지정된 건칠관세음 보살반가상이 있는데 불상의 높이가 91센티미터이며 연산군 7년(1501년)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예가 적은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건칠불상이란 종이로 만들어 옷칠을 한 불상을 말합니다. 먼저 흙으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의 표면에 마(麻)와 창호지, 회를 섞어 얇게 바른 뒤 마르면 표면에 다시 한지를 바르고 옷을 칠한 뒤 다시 한지를 붙이고 옷칠을 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 겉이 완전히 건조해지면 속에 든 진흙을 빼낸 뒤 그 위에 개금(改金)을 하여 불상을 완성합니다.



건칠보살상은 속이 비어 있고 한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가벼우나 습기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기림사의 건칠보살상은 머리에 상투를 올리고 그 위에 따로 만들어진 2단 구조의 보관을 썼는데, 관의 표면에는 아름다운 당초문(당쿨무늬)이 돌을 새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며 눈·코·입 등이 단아하게 묘사되어 있고 귀는 짧으며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양 어깨는 좁지만 가슴은 당당한 편이며 천의(天衣)를 걸쳤는데 양어깨를 내려와 대좌 아래까지 흐르고 상의자락 역시 다리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 옵니다.

목에는 3가닥의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있는 독특한 띠매듭은 조선시대에 나무로 만든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손은 대좌(臺座)를 짚고 다리는 대좌 아래에 내린 반가좌(半跏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 보아 관음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반적으로 얼굴 모습이나 체구는 당당한 편이나 손과 발이 작게 만들어져 비례감이 떨어집니다. 보살상의 대좌에 홍치(弘治) 14년(연산군 7년, 1501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유례가 드문 건칠불(乾漆佛)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건칠이란?

옷나무를 베어 불에 구우면 나오는 옷을 말하며 생칠은 옷나무에 흙집을 내어 나오는 옷을 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칠불은 나무로 골격을 만든 뒤 삼베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른 다음 속을 빼낸 불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는 것이 적어 가치가 매우 큼니다.

■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시 대** 조선시대

 **지정번호** 보물 제958호

기림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불상인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향나무로 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든 것 입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에 노사나불(盧舍那佛)과 석가모니불을 협시로 배치한 형태입니다.

근엄하면서도 정제된 얼굴, 양감이 풍부하지 않은 신체의 표현, 배부분의 띠로 묶은 옷 등에서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됩니다.

탐방 후에... 4

제 목	신문왕과 문무왕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신라 호국행차길 순례지 코스를 만들어 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문무왕과 신문왕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신라 호국행차길 순례지 코스를 만들어 봅시다.



기림사의 보물 415호 '건칠보살 반가상'을 만들 때 사용한 방법인 '건칠'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름답고도 쓸쓸한 '장항사터'

Q 무엇을 배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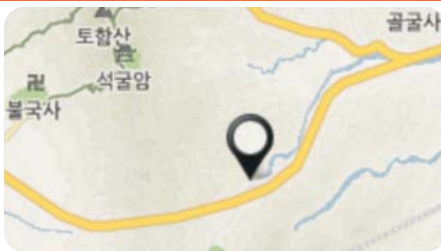
- 지금 절터로만 남아있는 장항사터를 돌아보고 이 절터가 주는 고즈넉함을 느껴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장항사지는 토함산 동남쪽 계곡의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절터입니다. 절을 지은 연대나 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장항리라는 마을 이름을 따서 장항리사지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불국로 951-38(양북면 장항리 1083)
관람시간	연중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79-6109
교통편	100, 150, 105-1번 버스 타고 장항리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guide.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절터만 남아 있으며 장항사지까지 올라가는 입구 계단이 가파름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장항사지

시 대 통일신라

장항사지는 토함산 동남쪽 계곡의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절터입니다. 절을 지은 연대나 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장항리라는 마을 이름을 따서 장항리사지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절터에는 서탑인 5층석탑과 파괴된 동탑의 석재, 그리고 석조불대좌가 남아 있습니다.

금당으로 보이는 건물터에 있는 석조불대좌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랫단은 팔각형으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윗단은 연꽃을 조각한 원형대좌입니다.



장항사지 대종천 상류

이 대좌 위에 모셔졌던 것으로 보이는 석조 불상은 여러 조각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하였으며,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장항사지 입구 계단

서탑은 일제시대에 도굴범이 탑 속에 들어 있는 보물을 훔치기 위해 폭파시켜 파괴한 것을 수습하여 다시 세웠으며 동탑은 계곡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절터에 모아두었습니다.



장항사 금당 건물터

장항리사지는 계곡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쌍탑을 세우고 그 뒤쪽 중앙에 금당을 배치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장항사지 석조불좌대

쌍탑 1금당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을 보이거나, 아직 강당과 회랑의 자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경주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舊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시 대** 통일신라

 **지정번호** 국보 제236호

장항리사지는 토함산 동쪽의 한 능선이 끝나는 기슭에 마련된 절터로서, 이곳에는 현재 금당터를 중심으로 동탑과 서탑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장항사지 동탑

1923년 도굴범에 의해 붕괴된 것을 1932년에 복원이 가능한 서탑만을 새로이 복원해 놓았고 동탑은 1층 탑신(塔身)과 5층까지의 지붕돌만 남아있으나, 서탑은 약간 소실된 것을 빼고는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기단부는 비교적 넓게 만들어져 안정감이 있으며, 네 모서리와 각 면의 가운데에 기둥을 본떠 조각했습니다.



장항사지 동탑 기단 인왕상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 몸돌의 각 면마다 문을 지키고 서 있는 한 쌍의 인왕상(仁王像)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지붕돌은 밑면에 5단씩의 받침을 두고 있고, 경사면은 평평하고 얇으며 네 귀퉁이는 뚜렷하게 치켜올려져 경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5층 지붕돌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만이 남아 있습니다. 탑의 1층 몸돌 각 면에 한 쌍의 인왕상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것이 특이한데, 이러한 현상은 8세기 전반기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이 탑의 독특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례가 아름답고 조각수법도 우수한 8세기의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 장항리 석조여래

 **소재지**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 대** 통일신라

장항리 불상은 절터에 흩어져 있던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도굴꾼이 석불안에 보물이 있을 줄 알고 해머로 깨버린 것입니다. 한동안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가 본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였습니다.



장항사지 석조여래

장항리 불상의 하반신이 없는데도 ‘좌상’이 아닌 ‘입상’으로 부르고 있는 까닭은 대좌에 불상을 세우기 위한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상의 크기는 대략 4.8미터로 여겨지는데 불교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의 크기가 대략 4.8미터(옛날 척도 1장 6척)라고 합니다.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엄숙함이 느껴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탐방 후에... 5

제 목	지금 절터로만 남아있는 장항사터를 돌아보고 이 절터가 주는 고즈넉함을 느껴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장항사지 동탑을 복원한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장항사지 석조여래는 왜 하반신 없는데도 '좌상'이 아니라 '입상'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장항사지를 둘러 본 후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6

해국 고살으로 접어드는 감포 '깍지길'과 '감포항'

Q 무엇을 배울까요

- 적산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는 감포 고살길을 돌아보고 감포 깍지길의 스토리텔링을 느껴봅시다.
- 1900년대 명성 높았던 감포항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감포시장과 일본식 건물의 흔적이 보이는 다물은집 구간, 그리고 다물은집 구간 내의 아니원길과 해국길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수산물직판장과 활어유통센터 등에서 감포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흥미 가득한 구간입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관람시간	연중
휴관일	없음
연락처	054) 744-3002
교통편	100번 타고 감포시장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감포항 활어유통센터-1.2킬로미터-고대안 등산로-4.0킬로미터-감포시장-132미터-다물은집-895미터-감포항 활어유통센터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감포 깍지길

경주의 해안길로 ‘감포 깍지길’이 8개 구간으로 나뉘어 50가지의 이야기 옷을 입은 채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출신의 수필가 주인식 님과 경주 감포 읍사무소의 의기투합으로 ‘감포 깍지길’이라는 책으로 읽는 여행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길을 만들고 구간마다 주제를 찾아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해(태양), 물, 나무, 불, 금, 흙, 달, 해(바다)로 나누어 스토리벨트로 엮는데 구간마다 특이한 자원을 찾아 테마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해 관광객에게는 재미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은 특산물을 통해 제2의 경제적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4구간 ‘해국길’

감포 깍지길에 있는 벽화마을은 나지막한 주택가 골목에 크고 작은 해국으로 단장하여 인상적인 마을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마을이라 그런지 7월이면 바다 근처 햇볕이 잘 드는 암벽이나 경사진 곳에 피는 ‘해국’과 잘 어울리며 꽃말은 ‘기다림’으로 수줍은 듯 소박한 자태로 오고가는 걸음을 반겨 줍니다.

감포 깍지길 중 제 4-1 구간인 ‘해국길’은 젊은 사람보다 지긋한 분들을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골목길로 근대적으로 개혁한 시기에 생긴 건물과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가 정겹습니다.

감포 안길(골목길) 코스는 감포시장 - 해국골목 - 해국계단 - 옛 건물 지하 창고 - 다물은집 - 구신천탕 - 우물샘 - 소나무집으로 이어집니다.



다물은집



구신천당



옛건물 지하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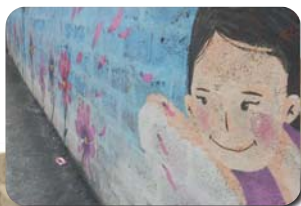
해국계단

‘다물은집’이란?

‘다물’은 고구려 말로 ‘옛 영토를 다시 찾는다’는 뜻으로 되찾고 다시 누릴 우리의 소중한 영토와 재산과 백성들을 기준으로 다물의 명사와 완료형 ‘은’을 붙여 ‘다물은집’이라 이름붙였습니다. 적산 가옥은 해방 뒤에 일본인이 물러가면서, 우리나라에 남겨 놓고 간 가옥을 뜻하는데, 이 적산 가옥이라는 뜻을 감포 깎지길을 스토리텔링한 주인석님이 새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물은집’은 개항과 동시에 일인들이 들어오면서 토지와 주거지를 고가에 매입하여 구한말시대에는 일본인 집단거주지였습니다. 그 후 급속한 산업화로 낙후 지역이 되었지만 옛 가옥의 보존이 이어져 지금까지 일본식 정취가 느껴지는 옛 가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국골목



해국길 벽화

■ 감포항



관광자원번호 17034

감포항은 100여년 전 제물포항 다음으로 개항하여 동해안의 항구로써 명성을 날렸습니다.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었으며, 해상교역을 할 동해안의 항구로는 감포를 으뜸으로 꼽았으며, 1937년 읍으로 승격될 만큼 일제시대부터 번창했던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1919년 감포내항 방파제축조로 항구의 입지를 갖추고 면적 44.5제곱킬로미터 인구 3,000명의 주민으로 동해 어업의 주생산지 역할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1937년 7월 1일 경주군에서는 가장 먼저 읍(邑)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규모가 아기자기하면서도 멋진 등대가 우뚝 솟아있는 감포항은 드나드는 어선이 많은 동해남부의 중심 어항입니다. 지금도 일본식 건물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고, 문무대왕릉에서 감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에는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횃집과 민박집들이 즐비합니다.

감은사지 석탑을 본떠 만든 송대말 등대에서 또는 북쪽 산꼭대기에 자리한 고대안에서 보는 감포항의 풍광이 멋지고 방파제는 동해 일출을 감상하기에 좋은 포인트로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송대말등대에서 바라본 감포항



감포항의 어선들



감포항 오징어 건조장



감포중고에서 바라본 감포항

탐방 후에... ⑥

제 목	적산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는 감포 고샅길을 돌아보고, 그려 넣고 싶은 벽화를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다물은집'이란 무슨 뜻인가요?



적산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는 감포 고샅길을 돌아보고, 감포 깍지길에
그려 넣고 싶은 벽화를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오감만족 바다 놀이터 ‘연동어촌체험마을’

Q 무엇을 배울까요

- 연동 어촌체험마을에서 다양한 바다 놀이를 체험해 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포항시와 경계 마을인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동 어촌체험마을은 해양레포츠 위주의 가족 휴양형 어촌 마을로, 에메랄드 빛 바다색에 물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정해역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연동길 38-1
관람시간	예약필수
휴관일	없음
연락처	연동 바다놀이터: 054) 743-7002, 펜션문의: 054) 776-0129
교통편	경주시에서 100번 버스 50분정도 타고 감포 정류장에 하차, 800번 버스도 가끔 있으며 오류 4리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youndong.seantour.com/
탐방시 유의사항	수상 안전 교육 실시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국내 최초 바다 놀이터 ‘연동어촌체험마을’

포항시와 경계 마을인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동어촌체험마을은 해양레포츠 위주의 가족 휴양형 어촌 마을로, 에메랄드 빛 바다색에 물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정해역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라나비-공중하강체험시설

또한 동해바다임에도 수심이 낮아 관광객들의 수산동식물 채취체험에 용이하고, 해양레포츠, 아라나비(공중하강체험시설)를 갖춘 마을로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가족 휴양형 어촌체험 마을입니다.

아라나비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로 양편의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체험객이 안전띠와 도르래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강하며 바다를 감상하는 신종레저체험이며, 경주 아라나비는 체험 타워와 바다, 해변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집합으로 기존에 없던 ‘바다 놀이터’라는 신개념의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해안에서는 해양경관이 가장 으뜸가는 곳으로 100가구에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입니다. 이곳에 나는 특산물로는 참전복과 성게, 자연산 돌미역과 해삼 등이며, 가구당 어업소득이 연간 약 2천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부자어촌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사업비 10억원으로 2013년 6월 착공하여 2,056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중해식으로 지상2층 규모로 1층에는 회의실 및 식당, 2층에는 숙박시설로 어촌체험마을 센타를 건립하였으며, 2014년 7월 바다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바다 놀이터에는 아라나비, 카약 트레킹, 풍덩, 스노클링, 전통낚시, 통발, 낚시배체험, 조개공예, 전통 놀이등이 있으며 모든 체험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레포츠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등대(치미등대), 3-D바닥벽화 등의 볼거리도 갖추고 있으며, 감포항까지 트래킹 코스가 있어 힐링의 즐거움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펜션에서 하룻밤 묵는다면 통발체험도 할 수 있으며, 그날 잡힌 게, 고동, 새우 등을 풍성하게 넣고 끓인 해물라면은 연동어촌체험마을에서 꼭 먹어봐야할 별미입니다.

그리고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연동항에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연화정(蓮花亭)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감포깍지길 탐방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왕복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깍지길은 이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손 꼭 잡고 걷고 싶은 길입니다. 경사가 완만하여 아이들이 걸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 오류 고아라 해변 (구 오류해수욕장)

 **소재지**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674

 **관광자원번호** 17022

고아라 해변은 감포항과 가까운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동어촌체험마을에서 동해안로를 따라 5분쯤 차로 이동하면 오류 고아라 해수욕장이 나타납니다.

유난히 고운 모래가 눈길을 끄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고아라 해변
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바닷가지만 여름
에는 30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경주의
명소입니다.



■ 100년이 넘는 해송 숲 속 캠핑장, 오류캠핑장

오류 고아라해변 뒤편으로는 100년이 넘는 해송들이 우거진 소나무 숲 속에
오류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캐라반 18대에는 여섯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
단위의 오붓하고 낭만적인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실내에서도 삼림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벽면 전체를 향나무 원목으로 시공
되어있으며, 뿐만 아니라 야영장 35면을 갖추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설치
되어 있어 해수욕과 함께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카라반과
야영장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샤워장,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집처럼 안락하게 캠핑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탐방 후에... 7

제 목	연동 어촌체험마을에서 다양한 바다 놀이를 체험해 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수영복				



'연동어촌체험마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체험과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바다놀이터에 내가 만들고 싶은 놀이기구나 체험활동을 구상하고 설명해 봅시다.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과 어촌 벽화마을 ‘읍천향’



무엇을 배울까요

-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 ‘파도소리길’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상절리를 관찰해봅시다.
- 읍천향 벽화를 감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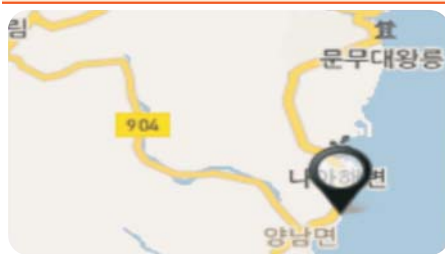


자원탐방 길라잡이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약 2,000만년 전 이 지역 일대에 현무암의 용암이 흘러 식으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었으며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도움으로 현재 그 앞에 전망대와 포토존 등 시설이 나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양남면 동해안로 주상절리군 경주시 감포읍 양남면 죽전안길
관람시간	연중수시
휴관일	연중무휴
연락처	해양수산과: 054) 779-6320~3
교통편	150, 105-1번 버스 타고 읍천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주상절리 관찰은 눈으로만 하며, 트레킹 코스를 다니며 안전에 유의해야함.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양남주상절리의 형태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 536호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약 2000만년 전 이 지역 일대에 현무암의 용암이 흘러 식으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누워있는 주상절리

2012년 9월 25일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었으며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도움으로 현재 그 앞에 전망대와 포토존 등 시설이 나 있습니다.

자연이 연출한 조각품이라 일컬어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곳 양남면 주상절리 해변에는 10미터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들이 1.7킬로미터에 걸쳐 고대 희랍의 신전 기둥처럼 줄지어 서 있는가 하면, 주상절리가 원목을 포개어 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누워 있고 또 백두산 보는 것 같은 신비감과 여인네의 주름치마, 부채꼴모양, 꽃봉우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웅기종이 모여 있는 가히 지질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유일의 자연유산입니다.

주상절리란?

마그마에서 분출한 1000℃ 이상의 뜨거운 용암은 차가운 지표면과 접촉하는 하부와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에서부터 빠르게 냉각됩니다. 빠르게 냉각하는 용암은 빠르게 수축하게 되어 용암의 표면에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오각형 혹은 육각형 모양의 틈(절리)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냉각 수축 작용으로 생긴 틈이 수직 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발달하면 기둥모양의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주상절리(柱狀節理, columnar joint)라 합니다.

■ 부채꼴 주상절리

주상절리의 방향은 냉각이 진행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뜨거운 용암이 지표로 분출하여 빠르게 냉각될 때 일반적으로 아래로는 지표면, 위로는 공기와 접촉하여 냉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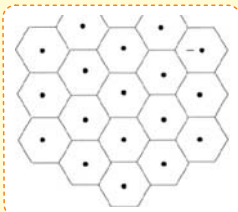
따라서 대체로 수직방향으로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수직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신생대 말기에 이곳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에서 발달하는 주상절리는 흔히 관찰되는 수직방향보다는 수평으로 누워있는 수많은 주상절리들이 마치 부채살과 같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송이 해국이 바다위에 곱게 핀 것처럼 보여 '동해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의 부채꼴형 주상절리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독특한 형태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며, 심미적인 가치와 더불어 그 생성기원에 있어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주상절리가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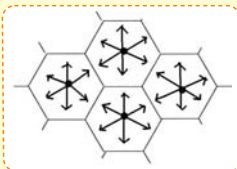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굳어서 어떻게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질까요? 이걸 벌이 육각형으로 집을 짓는 이유와 같습니다. 원은 선의 길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형이지만(즉 선의 길이를 최소한 사용하면 도형의 넓이는 가장 큼) 원으로 조밀하게 쌓기를 시도한다면 원과 원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반면 육각형은 빈틈없이 쌓아집니다. 왜 육각형이냐면 빈틈없이 쌓기가 가능한 다각형 중에서도 가장 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빈틈없이 쌓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즉 원을 제외하고 같은 길이의 선으로 가장 넓은 도형을 만들)

용암이 식을 때도 가장 최소한의 길이를 가지고 넓은 면적을 가지기 위해 육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자연에서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용암이 식을 때 수축하는데, 한 점에서 최소한의 변의 길이와 최대한의 넓이를 얻으려면 육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육각형의 단면이 생기는데 수직으로도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육각형 기둥마다 수축이 일어나는데 수축이 만나는 부위마다 아래와 같이 틈이 생기고 이러한 틈은 다른 부위보다 쉽게 풍화되기 때문에 블록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에서보면 육각형, 옆에서 보면 계단처럼 깎여나가게 됩니다.



■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 ‘파도소리길’

주상절리 전 구간(1.7킬로미터)을 트레킹할 수 있는 「파도소리길」은 구간별로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데크길 등 해안 환경을 고려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등대길 구간은 파도·등대·주상절리의 자연경관을 출렁다리에서 동시에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파도소리 길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산책로 전 구간에 경관조명 등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주상절리 3개소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 이용이 가능하며, 읍천항 갤러리(2.3킬로미터)와 연결된 총 4.0킬로미터의 테마가 있는 어촌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이 있는 어촌 벽화마을 ‘읍천항’



관광자원번호 17027

읍천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읍천으로 된 이후 지금까지 오고 있으며 마을 서쪽 언덕에 대나무 밭이 있어서 ‘죽전리’ 라고도 불립니다.

동해안 남부에 속하는 읍천항은 육상 교통이 편리하고, 북동쪽 해상 지점에 울릉도 근해 어장이 위치해, 어항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항입니다.



울산과 감포 사이에 있는 읍천항은 낚시터와 관광지로 관심이 주목되는 항으로 동해 근해에서 가장 높은 해수온을 보이는 읍천 앞바다는 사철 감성돔, 돌돔, 뽕에돔이 입질을 합니다.

바닥 지형이 잘 발달된 단층형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데 특히 5월에는 뱀어돔 입질이 절정이고, 인근에 위치한 관성해수욕장은 깨끗한 청정해역과 송림이 어우러져 반원형을 그리고 있으며, 골프장, 콘도, 놀이시설, 관광지 등이 주변에 있어서 해양레저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 읍천항 벽화마을의 탄생

읍천리 벽화는 인근 월성 원자력에서 여름벽화 공모전을 실시했을 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 작가 등이 참여하여 “우리 집 벽에 그림 그려도 괜찮아요” 하는 곳에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탐방 후에... ⑧

제 목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읍천항 벽화를 감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수영복				



‘주상절리’란 무엇인가요?



읍천항 벽화 마을에 있는 그림을 3개만 골라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전춘항 관광단지’와 ‘전춘 솔밭해변’

Q 무엇을 배울까요

- 전춘 솔밭해변의 해송을 관찰해보고, 해풍림의 역할을 알아보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전춘항은 중소규모의 어항으로,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고 야외공연장도 갖추는 등 동해 남부 최고의 아담한 미항으로 손꼽히는, 떠오르는 관광명소입니다. 전춘솔밭해변입구에 커다란 소나무가 우거진 자연적인 곳에 전춘송림캠핑장이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관람시간	연중수시
휴관일	연중무휴
연락처	010-2704-9239(번영회), 054) 779-6320~23
교통편	100번 버스 타고 전춘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감포읍사무소(www.gyeongju.go.kr)
탐방시 유의사항	솔밭 해변 캠핑 시 자연환경 훼손시키지 않기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전촌항

 **관광자원번호** 17033

전촌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관광 단지 조성지구로 선정되어 총4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된 관광 어항입니다.



중소규모의 어항이지만 리모델링 이후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고 야외공연장도 갖추는 등 동해 남부 최고의 아담한 미항으로 손꼽히는, 떠오르는 관광 명소입니다. 세련되고 깔끔하게 꾸며진 공용화장실을 비롯하여 항구 전체가 도심 속의 공원처럼 깔끔합니다.

또한 장진회단지 등의 힐집타운과 민박촌이 형성되어 있는 등 편의시설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고등어낚시로 유명해 선상낚시의 낭만을 즐기는 강태공들의 지속적인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인근 10여분 거리의 구름마을에 효자 정돈익의 충효를 기리기 위한 충효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촌항에서 감포항으로 가는 노선은 전촌항 왼편 산을 오르게 되는데 10여분 정도 산을 올라 정상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게 되며 푸른 바다와 넓은 감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감포깎지길 1구간의 노선인 해변노선을 따라가면 부산 이기대 산책로를 능가하는 절경이 펼쳐지며 용이 살았다는 용굴을 발견하는 쾌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 전촌솔밭해변 (구 전촌해수욕장)



관광자원번호 17021

전촌솔밭해변은 송림이 있어 더욱 운치 있는 해수욕장으로 감포항과 가깝고, 나정고운모래해변과 인접해 있습니다.



전촌솔밭해변입구에 커다란 소나무가 우거진 자연적인 곳에 전촌송림캠프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으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상쾌한 공기와 멋진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가에 위치한 솔밭은 여름 피서객에게는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소나무

소나무는 우리 나라의 나무 가운데 은행나무 다음으로 큰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껍질의 빛깔은 대체로 위쪽은 적갈색이고 아래는 흑갈색이나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속은 잣나무·누운잣나무·섬잣나무·백송이 속하는 단유관아속(單維管亞屬)과 소나무·해송이 속하는 쌍유관아속(雙維管亞屬)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소나무류로서 이와 비슷한 것에 만주흑송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해송과 자연잡종을 잘 만드는데 그 잡종송을 간흑송(間黑松)이라 합니다.

간흑송은 대체로 줄기가 곧고 빠르게 자라며 형질이 우량합니다. 소나무와 해송의 분포경계, 즉 해안 가까운 곳에 이러한 잡종송이 흔히 발견됩니다.

해안을 따라 분포해 있는 해송의 유전자는 이러한 잡종과정을 통해서 소나무가 자라는 내륙 쪽으로 전파되어 가는 유전자확산(遺傳子擴散) 현상을 나타냅니다.

곰솔

곰솔은 소나무과에 속한 상록 침엽 교목입니다. 대개 높이 20미터에 둘레 1미터 가량 자라고 우산을 펼쳐놓은 모양으로 5월쯤 꽃을 틔우는 암수 한그루입니다.

껍질이 흑갈색이라 검솔(곰솔)이나 흑송(黑松), 또는 바닷가에 자생해서 해송(海松)으로도 불립니다.

자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지이며 국내의 경우 동·서·남해 안에 자랍니다.

일반 나무와 달리 소금기 먹은 해풍에도 잘 자라 방풍림으로 애용되며 흔히, 육송(陸松)이나 적송(赤松)으로 불리는 내륙지방의 검붉은 소나무와 구분됩니다. 곰솔은 줄기가 가늘고 옹이가 많으며 구부정해서 건축 재료로는 잘 쓰이지 않고 곰솔은 주로 해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해송은 이렇게 척박한 모래사장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성장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바닷가에 숲이 조성되어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 마을을 보호해주는 나무가 ‘해송’, ‘곰솔’이라 부르는 나무입니다.

해송은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곰솔’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나무를 두고 곰솔과 해송이란 이름이 거의 같은 빈도로 쓰입니다.

소나무의 줄기가 붉은 것과 달리 해송은 흑갈색을 띄어서 한자 이름은 흑송(黑松)입니다. 흑송을 순 우리말로 부르면 ‘검솔’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곰솔’로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잎이 부드럽고 새순은 적갈색인데, 해송은 잎이 억세고 딱딱하며 새순이 나올 때는 회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여성적인 반면 해송은 남성적이라고 합니다.

내륙에서도 흔히 자라므로 해송이라는 이름보다는 ‘곰솔’이라 부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탐방 후에... 9

제 목	전촌 솔밭해변의 해송을 관찰해보고, 해풍림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수영복				



‘곰솔’이란 무엇인가요?



해안 주변의 소나무 ‘해송’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려보고 바닷가에 자라나는 해송의 역할을 적어봅시다.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 ‘송대말’ 등대

Q 무엇을 배울까요

- 경주의 특성을 살려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해 만든 송대말 등대의 불빛 원리를 알아봅시다.
- 방파제 등대 색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자원탐방 길라잡이

송대말 등대는 통일신라를 이룬 문무왕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로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등대이며, 또한 전시실을 마련하여 등대 및 바다와 관련된 자료들과 여러 가지 전망대, 석탑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18-94
관람시간	연중 09:00~18:00
휴관일	연중무휴
연락처	054) 744-3233
교통편	감포항에서 800번 버스 송대말 항로표지관리소하차
참고사이트	포항지방해양항만청(pohang.mof.go.kr)
탐방시 유의사항	절벽 위에 위치한 등대 관람시 추락 주의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송대말 등대



관광자원번호 17037

경주시 감포읍에 위치한 감포항의 북단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 망망대해를 지키는 송대말(松臺末) 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대말은 말 그대로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이라는 뜻인데 등대 주변에 수령 300년~400년 정도의 소나무 숲이 무성합니다.



송대말 등대는 감포항 인근 해역에는 암초들이 길게 뻗어 있어 작은 선박들의 해난사고가 빈번하자 암초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1933년 2월 감포어업 협동조합에서 설치했는데 감포항 이용선박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감포항 북쪽 송대말에 1955년 6월30일 무인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육지표시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돼 1964년 12월 20일 기존 등탑에 대형 등명기(등대의 불빛을 내는 기계)를 설치해 광력을 증강한 유인등대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등대는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특성을 살려 무신호실과 사무실, 전시실이 있는 1, 2층은 신라시대 건축양식인 회랑과 맞배지붕의 이견대 모양으로 만들었고, 3~5층의 등탑은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원래 등탑은 백색의 원형이었으나 지난 2001년 12월 등대를 종합정비하면서 통일신라를 이룬 문무왕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로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실을 마련하여 등대 및 바다와 관련된 자료들과 여러 가지 전망대, 석탑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고, 전국의 7대 등대에 대한 설명도 있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망이 일품입니다.



송대말 등대 전경

송대말 등대 불빛이 한층 밝아진 것은 동해안의 전진기지항인 경주 감포항의 송대말 등대 등명기를 국내에서 개발한 신형으로 2013년 12월에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50만 촉광으로 불빛 거리가 48킬로미터에 달해 기존 미국산(40만 촉광)의 29킬로미터보다 19킬로미터 이상 더 멀리 나가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으며 송대말 등대는 감포항을 중심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나 항해 선박에 20초에 한번씩 불빛을 깜빡여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등대 앞 바위



등대 앞 일제시대 양식장



등대 앞 방파제



등대 전시관



등대 불빛 체험



우리나라 등대 16경

■ 송대말 등대 불빛 원리

등대는 각 등대마다 빛을 발하는 색깔이나 사이렌을 울리는 간격 등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고시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파표지나 음파표지 등을 통해 자신이 탄 배가 어느 항로를 운항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등대는 대개 일몰에 등을 켜고 일출 때 등을 끕니다. 흰색 불빛을 몇 십초간 뿌리는데 송대말 등대의 경우, 백홍호섬광 34초 1섬광입니다. 즉 흰색과 빨간색 양면렌즈가 34초에 360도 회전을 하면서 두 가지 불빛을 발하며 주변에 암초나 위험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대말 등대와 울산의 화암추 등대 등 2개의 등대만 흰색과 빨간색 불빛을 발하는 등대이고, 독도 등대는 10초, 울진 죽변 등대는 20초 1섬광 등 등대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흰색이지만 더욱 조심하라는 뜻에서 흰색과 빨간색 섬광이 34초를 주기로 번갈아 돌아갑니다.

이 불빛이 바다에서 전달되는 거리는 등대의 높이 등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송대말 등대는 약 16마일(약 29.6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소리음으로 등대의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을 음파표지라고 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는 5~7월 사이에 주로 울리고 음이 도달하는 거리는 5마일(약 9킬로미터)이며 안개가 낀 날에는 계속해서 울리기도 합니다.

이 밖에 문설주는 육지로 볼 때 오른쪽은 빨간등, 왼쪽은 파란등이며 검은색 기둥에 노란색을 한 등대는 주변에 바위가 많으니 남쪽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전엔 어부들이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져주고 별의 위치를 보고 다시 그곳을 찾아 갔지만 요즘엔 성능 좋은 위성항법정보시스템(DGPS)을 도입해 자신이 던진 그물과 오차거리가 1미터가 될 정도로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195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 방파제 등대 색의 의미

배가 항으로 들어갈 때 항구를 기준으로 우측에 설치된 등대는 빨강색, 좌측에 설치된 등대는 하얀색으로 도색되어 좌,우현을 구분합니다.



밤에 우측 등대는 빨간 빛, 좌측등대는 녹색 빛을 밝혀 선박을 안전하게 항구으로 인도합니다.

빨간 불빛은 우측에 장애물이 있으니 우측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고, 흰색(녹색불빛)은 좌측에 장애물이 있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며, 노란색 등대는 선박들에 주변 해상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탐방 후에... 10

제 목	경주의 특성을 살려 신라의 문화재를 이용하여 나만의 등대를 디자인해 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수영복				



방파제 등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으로 연결해봅시다.

- | | | |
|--------|---|---------------------|
| 빨강색 | • | • 주변 해상을 주의해라 |
| 녹색, 흰색 | • | • 항구기준, 좌측에 장애물이 있다 |
| 노란색 | • | • 항구기준, 우측에 장애물이 있다 |



감은사지를 형상화한 '송대말등대'처럼 신라의 문화재를 이용하여 나만의 등대를 디자인해 봅시다.

11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Q 무엇을 배울까요

- 경주의 에너지원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시다.

ㄱ 자원탐방 길라잡이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동해안에 있는 국내 유일한 가압중수로형(加壓重水爐型) 원자력발전소입니다. 2015년 현재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중수로를 채택한 것은 농축시키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	경주시 감포읍 양남면 나아리
관람시간	평일 09:00~17:00
관람시설	홍보전시관, 발전소 주제어실 및 터빈실, 전망대 등 (단, 토·일·휴무일은 홍보전시관 견학만 가능)
휴관일	연중무휴(단, 명절, 월요일, 회사가 지정한 날 휴무)
연락처	월성원전 홍보팀 TEL. 054) 779-2844 FAX. 054) 779-2849
교통편	경주 150번 버스로 1시간정도 지나면 '봉길터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나아리 월성원자력후문'에서 하차
참고사이트	한국수력원자력(www.khnp.co.kr/intro.do)
탐방시 유의사항	전시 홍보관 관람시 실내정숙

위치 안내도	탐방지 모습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동해안에 있는 국내 유일한 가압중수로형(加壓重水爐型) 원자력발전소입니다. 2015년 현재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발전소 인근에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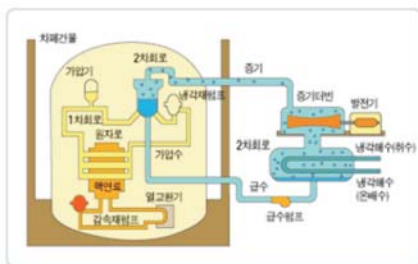
지난 1977년 5월 첫 삽을 뜬 이후 6년여의 대역사 끝에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모두 4호기가 운영 중인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수로원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울진과 영광,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경수로를 채택한 것과 달리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를 채택한 것은 농축시키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수로에서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우라늄은 농축과정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하는 반면 중수로에서는 일반 물(H_2O)보다 무거운(重) 물(D_2O)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수가 중성자와 반응해 베타선을 방출하는 삼중수소를 생성하는 것과 같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이러한 삼중수소로 인한 피폭 우려를 0%에 가깝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삼중수소 제거설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오염 물질이 아니라 핵융합로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1그램에 무려 2,7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원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가압중수로형 원자로

이런 이유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제거설비는 안전을 위한 철통 같은 방어막이자 소중한 자원이 솟아나는 화수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수로의 본고장인 캐나다가 기체촉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세계 최초로 액체촉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삼중수소 유출의 우려가 낮을 뿐 아니라 관리의 편리성도 높다고 합니다.

중수로 설비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원자력 발전소 홍보전시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월성 원자력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곳은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홍보 전시관에 들어가면 방사능폐기물 및 관리시설, 사용 후 핵연료, 한국방사선 관리공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홍보전시관

■ 온배수 양식장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또 다른 명물은 바로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입니다. 1999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능성어와 도미, 광어와 같은 고급 어종을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해 양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하면서 생긴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이 해수를 다시 냉각시켜서 방류하는데 이 방류수를 온배수라고 합니다.

발전소 냉각수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배수로 양식된 물고기는 수온이 높아서 보통 물고기들보다 30%정도 크다고 하며, 주로 환경단체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자 할 때 제공됩니다.



자연산 활어가 아니면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는 지역 주민의 입맛마저 사로잡을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바다의 날' 행사시 양식장에서 키운 치어를 방류하여 월성원자력 주변해역 어족자원 증대에 기여하며, 또 어민들에게 전복치패를 무상 제공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경주 풍력 발전소

 **소재지** 경주시 양북면

바람이 시작되는 곳, 토함산 옆자락의 경주 풍력발전소는 석굴암에서 5분여 거리에 있으며, 현재 총 7기의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7기의 발전기로 연간 2만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냅니다.

네비게이션에 토함산 솔밭 가든을 검색해서 올라가면 도착할 때 쯤 풍력발전소 간판이 보이는데 이 간판을 따라 쭉 올라가며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 신·재생 에너지 종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

✓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 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 분야로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 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 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기술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

✓ 석탄가스화·액화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기술

✓ 지열에너지

지표면으로 부터 지하로 수미터 에서 수킬로미터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 수력에너지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 시설용량 10,000kw(10MW)이하는 소수력 발전시설로 규정

✓ 해양에너지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수의 조류흐름을 이용한 조류발전,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 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대표적인 해양에너지로는 시화호조력발전과 울돌목조류발전이 있음

탐방 후에... 11

제 목	경주의 에너지원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학 반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준 비 물	필기도구, 워크북, 카메라, 수영복				



월성원자력발전소는 ‘가압중수로발전소’입니다.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 봅시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적어봅시다.

3.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 후에

신라 천년의 수도로 이름이 알려진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을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경주의 역사 문화 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탐방을 했다면 이번 탐방은 감포를 중심으로 한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를 경험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경주 감포는 남동해권의 중심 항구로 일제시대 때부터 큰 조명을 받았지만 번창의 시기들이 지나가고 주춤해 있었으나 신라의 해양 유적지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주 바다 천혜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파도소리길 및 벽화마을을 조성하여 경주의 바다를 찾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감포만의 이야기 길을 만든 감포 깎지길이 조성되었고, 바다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아직도 유인 등대인 송대말 등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중심의 가족 휴양형 어촌 마을, 연동 바다 놀이터는 가족 중심의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자원의 주요 원천인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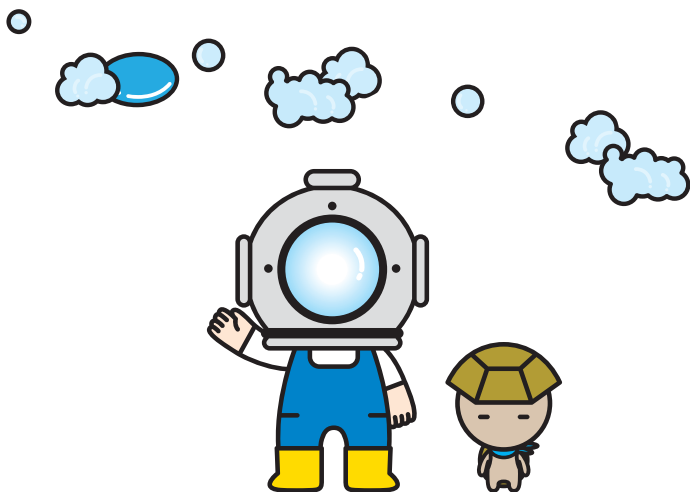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로 신라문화제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있으며,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대회, 교촌 문화공연, 문무대왕릉 해맞이 해룡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해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수산물을 명품화 해 '해파랑'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가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0년까지 1천600억원을 들여 수산물 고부가 생산체계 구축 및 명품화, 감포항 연안항 승격추진, 연안바다 목장화와 해양생태계 복원 등 5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포항이 연안항으로 승격되면 화물 여객터미널, 마리나 크루즈 산업단지, 해양레저 휴양 복합 공간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경주의 역사문화유적관광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신동해안 경주바다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주의 바다와 해양 문화 탐방이야말로 역사와 자연, 사람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인문학적 해양 탐방코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라의 호국정신, 신라인의 기상과 슬기, 가족의 화합, 미래 역사 환경 도시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배우고 싶다면 Beautiful 경주로 떠나볼까요?



탐방을 마치고...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주 해양 실�크로드 코스'를 구상해 봅시다.

참고자료

감포읍사무소
경북나드리
경주문화관광
경주시청
경주 임실치즈피자체험관
골굴사
기림사
네이버지도

문화재청
신라문화원
신라사람들
연동어촌체험마을
월성원자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해파랑길

사진제공

국립경주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문헌

「감포깍지길」, 주인석, 2012
「감포읍지」, 감포읍유림회, 2013

본 『해양문화탐방의 교육Ⅲ - 경북지역 해양
문화체험 자원지도』는 (재)한국해양재단과
경북씨그랜트센터, 울진군청이 공동 개발
하였습니다.

비매품



ISBN 978-89-93511-40-6
ISBN 978-89-93511-32-1 (세트)

해양문화 탐방의 교육Ⅲ 경북지역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초 판 1쇄 찍은날 2015년 12월 15일

초 판 1쇄 펴낸날 2015년 12월 15일

펴낸곳 한국해양재단, 경북씨그랜트센터, 울진군청

펴낸이 이재 완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6층

전 화 02-741-5278

팩 스 02-3673-3312

홈페이지

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

편집·출판 대성사P&T

ISBN 978-89-93511-40-6

ISBN 978-89-93511-32-1 (세트)

학생워크북 만든 사람들

집필위원

김선애 (금강초등학교 교사)

한향은 (금강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권삼문 (여헌기념관 학예연구실장)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

유선철 (경북씨그랜트센터 센터장)

윤성규 (대구대학교 생태학과 교수)

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경주의 바다와 해양문화 탐방을 통해
관찰하며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이제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탐방을 시작하세요.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
- 해양교육포털 홈페이지 www.ilovesea.or.kr

비매품



9 788993 511406

ISBN 978-89-93511-40-6

ISBN 978-89-93511-32-1 (세트)

